



2020년 3월 18일

관계자 여러분

3월 11일, 다니엘 K 이노우에 국제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여, 유감스럽게도, Hawaii International Film Association (HIFA) 하와이 필름 / 비디오 파일럿 프로그램이 일시 중지된것을 여기에 보고 드립니다.

HIFA는 HIFA Waiver Letter (HFVPP)를 사용하여 입국하고자한 외국국적의

6명이 3월 11일 도착즉시 추방되었고, 다른 12명도 3월 12일에 추방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호놀룰루 공항의 CBP (세관 및 국경 보호국)에 바로 연락을 했으나, 현지점에서는저희의 Waiver Program은 승인되지 않으며, 현재의 이민법만이 적용 된다는 것이 책임자의 설명 이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일부 촬영대의 입국은 허락이 됐으며, 또 다른 일부의 입국은 거부 된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강제 추방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 문의를했으나, 명확한 이유를 들을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이유로 발생한 것이며, CBP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건에 대해 언급 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하와이 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촬영대로서 입국하기 위해서는 I, O 또는 P 비자가 필요하다는 CBP 책임자의 발언이 있었기에 만약 이것이 최종 판단일 경우 지금까지 TV, 광고 및 모든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한 촬영대가 하와이에 입국하기 위해 사용해 왔던 Waiver Program이 무효가 되기에, HFVPP 프로그램의 일시적인 중단을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HFVPP 프로그램은 1998년부터 호놀룰루와 코나 공항의 입국으로 실시,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이번 건과 같은 문제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국, 각 조합, 미국 노동청, 하와이 이민국, 그리고 하와이 주정부와 다니엘 이노우에 상원의원의 승인 아래 합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 발생한 문제로 인해 HIFA 는 저희 Waiver Program 을 이용해 호놀룰루 공항, 그리고 코나 국제 공항에 해외 촬영대가 문제없이 입국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HIFA 는 하와이주 필름 커미셔너, 그리고 연방군 상원의원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상황이 신속히 해결되고 하와이에서의 해외 촬영대의 빠른 회복을 바라며,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Sincerely yours,



Harry Ladera
HIFA President